

직업능력개발

I. 직업능력개발 정책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간·전략 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분야의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훈련기관 선정·발표 (2014.1.6.)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계, 건설, 전기·전자 등 기간·전략 산업 분야와 디자인·방송, 정보·통신, 게임 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분야의 기술 인력 4만 4천여 명을 양성할 민간훈련기관(246개 훈련기관)을 선정·발표함.
 - 246개 기관, 92개 직종의 854개 훈련 과정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인원은 44,479명으로 전년(32,053명) 대비 38.8% 증가
 - 이번 훈련기관 심사에서는 훈련의 질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 활용 과정 및 취업 연계형 훈련 과정 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 금년도에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직종 체계를 개편
 - 더불어 국제 의료 통역, 빌딩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품질 경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관련 직종을 추가로 신설함.
- 훈련 성과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이 높은 과정을 대상으로 취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할 예정임.
- 훈련 희망자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훈련 상담을 받은 후 해당 훈련기관의 모집 절차에 따라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 훈련 기간은 3~12개월임.
- 훈련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지원하며, 훈련 중에 최대 월 41만여 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고용노동부, 2014년 내일배움카드제 적합 훈련 과정 확정·발표(2014.1.2.)**

- 고용노동부가 2014년도 실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제 적합 훈련 과정 7,794개(2,312개 훈련기관)를 확정·발표함.
 - 금년도 내일배움카드제 사업 예산은 2,854억 원, 훈련 계획 인원은 실업자 21만 7천 명임.
- 이번 심사에서는 지역·직종별 훈련 수료자 중 취업자 수가 많은 훈련 직종에 더 많은 훈련 과정을 공급하고, 훈련기관 평가 및 과정별 취업률 등의 성과를 반영해 우수 과정 중심으로 승인함.
 - 훈련과정 심사 일정: 신청 공고(2013.8.16.) → 신규 신청 과정 심사(10.12.~12.10.) → 현재 운영 중인 훈련과정을 대상으로 유효 기간 연장 신청 공고(11.28.~12.10.) → 훈련과정 조정 심사(2013.12.26.)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에 종합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훈련 과정을 더욱 많이 공급하도록 함.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훈련 과정의 하향 평준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우수 훈련기관의 과정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수요를 반영하도록 심사를 강화함. 2013년 1만 2천여 개의 훈련 과정을 올해에는 7천 8백여 개 수준으로 줄이면서 우수 훈련 과정 중심으로 승인
 -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훈련 참여자 상담을 강화하여 취업과 훈련 수강의 의지가 높은 훈련 참여자를 중심으로 내일배움카드제는 물론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과정 등 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훈련 과정 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과정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상담 기능의 보강을 위해 HRD-Net에 실업자가 수강 가능한 다양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 과정)의 훈련 과정 정보 및 취업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함.
- 훈련 성과가 우수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는 취업률 및 고용 유지율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훈련 시설 장비 대부 시의 이자율 인하(4%→1%), 훈련 교사, 시설 장비 등 훈련 과정 변경 시 사전 승인 대신 사후 신고로의 완화 등 훈련 과정 운영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우수 기관이 더욱 안정적으로 더 많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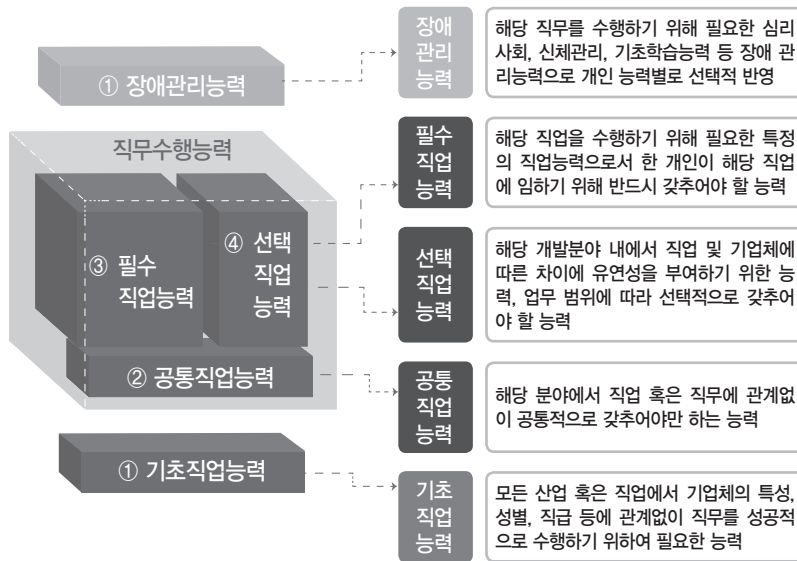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 체계 완성(2014.1.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구축한 “직업 능력 단위” 중심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 체계」를 완성하고, 60개 훈련 직종별 교육훈련 계획서 및 학습 안내서를 제작·보급함.
 - 이로써 국내 최초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 기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 체계 구축이 완료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1년 NCS 기반 직종별 세부 훈련 기준집 제작과 2012년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별 시설 장비 기준집 제작에 이어, 2013년 장애인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계획서 및 학습 안내서 보급을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 체계 구축을 마무리함.
- 이번에 구축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 체계는 직종별 세부 훈련 계획 단계에서부터 비장애인과 차별되는 장애 관리 능력이 추가되었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에서만 운영되는 실무 작업 분야(지적·자폐성 장애 직업훈련), 웹접근성 직종(시각 장애인 직업훈련 직종) 등이 ‘직업 능력 단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 체계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비장애인 훈련과 동일하게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 것이었음.

그림 1.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도



- 공단은 지난해 제작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계획서 및 학습 안내서 17권(12개 분야 60개 훈련 직종)을 KEAD디지털능력개발원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등 공공·민간 훈련기관 80곳에 배부함.

□ 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일·학습 듀얼시스템 확산 계획 보고

(2013.12.10.)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 및 일·학습 듀얼시스템 확산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NCS 개발을 위해 산업 현장 전문가 5,444명과 함께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250개의 NCS를 개발함.
 - 더불어, 개발한 NCS를 활용해 일부 특성화고와 폴리텍대학 등의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51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지식 평가가 아닌 현장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
- 일과 NCS 기반 학습의 현장 병행을 가능케 하는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지난해 9월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한 이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계의 추천을 통해 수준 높은 기술 교육이 가능한 중소·중견 기업 51개를 선발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 중임.
 - 특히, SW협회 등 5개 사업주 단체와 현대자동차 등 11개 대기업이 듀얼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함.
- 향후 추진 내용
 - 고용노동부는 2014년까지 NCS 개발을 완료하고, 개발한 NCS에 현장의 기술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또, NCS 적용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발굴해 교육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전체 교사와 강사를 대상으로 NCS 특별 연수를 실시할 예정임.
 - 기업 현장에서는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통해 NCS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임. 아울러 듀얼시스템 참여 기업 수가 2014년에는 1천 개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까지 1만 개 기업, 7만 명이 듀얼시스템에 참여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

- * 목표: 2014년: 1천 개 ⇒ 2015년: 3천 개 ⇒ 2016년: 5천 개 ⇒ 2017년: 1만 개
-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단체 등 산업계에 듀얼시스템 참여 기업 선발 및 NCS 기반 교육훈련 과정 개발, 수료생 평가, 자격시험 실시 및 발급, 능력 중심 채용·인사 관리 확산 등의 역할을 위탁하고 관련 예산 등을 지원할 예정

□ **고용노동부 등, 2014년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 기업 모집 개시**
(2013.12.10.)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5개 산업 분야 사업주 단체 및 협회가 2014년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 기업 1차 모집을 공고함.
 - 금년 1월 31일까지 약 500개 기업을 1차로 선정하기로 함.
 - * 5개 산업 분야 사업주 단체 및 협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선정 분야 및 공모·선정 대상
 - 선정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이미 개발된 문화콘텐츠, 건설, 기계(금형), 재료, 화학, 전기·전자(반도체), 정보 통신(SW)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
 - 공모·선정 대상: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 양성 의지가 높은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함.
 - 단 명장기업, 월드 클래스 300, Best HRD 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기술력 및 발전 가능성, HRD 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과 기술력 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업종 특성상 교육훈련과 채용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장기간(6개월~4년)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한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할 계획

- 공동훈련센터형: 자체 현장 외 훈련(Off-JT) 여건이 어려운 기업이 외부 전문 교육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현장 외 훈련을 실시하는 형태로, 금년부터 교육기관은 공동훈련센터형으로 듀얼시스템에 참여 가능함.

○ 선정 기업 대상 지원 내용

- 듀얼시스템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현장 훈련 인프라 구축 및 기업 내 교육훈련 관리자 활동 지원 등 자체 교육훈련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
- 또, 학습 근로자 훈련비용[현장 훈련(S-OJT)+현장 외 훈련(Off-JT)] 및 학습 근로자 훈련 수당 지급, 자격 취득 연계 등 체계적 훈련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향후 계획

- 금년 시범 사업은 총 3차의 공모를 통해 1,300개 기업을 모집할 계획임. 이번 1차 공모를 통해서도 최소 5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2월 말에 500개 기업 선정을 위한 2차 공모, 4월 말에 300개 기업 선정을 위한 3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임.
- 오는 2월 말에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선정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참여 기업이 확정되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및 HRD-Net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임.
- 한편, 듀얼 참여 기업의 학습 근로자로 지원하려는 경우 공단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 선정 기업에 직접 지원할 수 있음. 공단 홈페이지, HRD-Net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 기업의 학습 근로자 모집 및 채용 계획을 수시로 안내할 예정임.

□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SW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발대식
공동 개최(2013.12.5)

- 2013년 12월 4일 소프트웨어(이하, SW)분야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발대식이 개최됨.
 - 2013년 하반기에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SW 혁신 전략(미래창조과학부, 10월)」과「전략 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산업통상자원부, 9월)」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SW 인력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함.
 - 이에 따라 SW 기업 및 관련 협회와 SW 융합 수요가 큰 주력 산업 분야의 SW 활용 기업, 전국경제인연합 등이 포함된 위원 구성 작업을 거쳐 발대식을 개최함.
- 추진 배경
 - 기업과 대학의 상이한 SW 인재상으로 인해 SW 분야 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가 발생
 - 이에, SW 인력 수급 주체 및 정부가 인력 양성 방향, 수급 현황 등을 협의·공유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을 추진함.
- 위원 구성과 협의체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 기업 및 관련 협회, SW 활용 기업 및 전경련 등의 SW 인력 수요 측 ○ 대학, SW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온라인 SW 교육기관 등 SW인력 공급 측 ○ 이상 총 29개 기관 대표 29명으로 구성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 인력 수급 주체 간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추진 및 대정부 정책 건의 ○ SW 인력 관련 기초 데이터 조사(SW 인력 수요, 교육훈련 수요 등) ○ 취업 상담실 등 SW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생애 재설계 멘토링 기관으로 참여(2014.11.11.)**

- 노사발전재단이 중·장년층 경력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 및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맞춤형 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함.
 -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시범 사업인 「중·장년 취업아카데미」의 생애 재설계 멘토링 기관으로 참여
 - 「중·장년 취업아카데미」는 기존의 단순 훈련 및 직업 알선에 그쳤던 직업 훈련에서 벗어나 사전 경력 진단과 멘토링(컨설팅)을 통해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이후 취·창업 맞춤 훈련을 통해 취업으로까지 연결되게 하는 중장년 맞춤형 패키지 사업으로, 훈련에 따른 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함.
- 지난해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한국표준협회, 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퇴직 전후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함.
 - 예컨대,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연구소의 '글로벌 의료 코디네이터 과정'의 경우, 국내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와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하고, 환자와 동반 가족의 국내 입국에서부터 출국에 이르기까지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해외 경험과 어학 능력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누구나 신청 가능함. 훈련 과정 수수료 후에는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유명 의료 기관으로의 취업을 연계함.
 - 한국표준협회는 50세 이상에 특화된 취업 훈련인 '안전 품질 컨설턴트' 과정을 운영. 훈련 과정 수수료 후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품질 관리 담당자 자격과 국가 공인 자격인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표준협회의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II. 직업능력개발 통계

◆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실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3.8) 결과

□ 2013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46.9%로 전년 동월 대비 9.7%p 증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 격차는 1.6%p 증가

- 성별로는 남성 근로자가 49.9%로 전년 동월 대비 10.2%p 증가하였고, 여성 근로자는 42.8%로 8.9%p 증가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전년 동월 대비 교육·훈련 경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30대 근로자층에서 11.8%p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치를 보임.
- 학력별 교육·훈련 경험 비율을 보면, 전문대졸 근로자가 51.4%, 대졸 이상 근로자가 65.0%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0%p, 10.8%p 증가함.
- 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51.5%로 전년 동월 대비 10.1%p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37.3%로 8.5%p 증가
 -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 격차는 14.2%로 전년 동월 대비 1.6%p 증가하여 그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 사업체에서 교육·훈련 경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 근로자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5.2%p 증가하여 큰 증가치를 보임.
 - 나머지 300인 이하 사업체 종사 근로자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평균(9.7%p)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 가입 여부별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52.6%, 고용보험 비가입자가 21.8%로 나타남.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교육·훈련 경험 비율 격차가 30.8%

로 전년 동월 대비 5.8%p 증가함.

표1. 임금근로자의 인적속성별 교육·훈련 경험 비율

(단위: %, %p, 전년 동월 대비)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2013. 8		
									증감
임금근로자 전체		26.8	30.8	31.2	35.5	37.2	46.9	9.7p	
성별	남자	29.0	32.7	33.1	37.7	39.7	49.9	10.2p	
	여자	23.9	28.1	28.6	32.6	33.9	42.8	8.9p	
연령	15~29세	25.6	28.2	28.9	33.6	33.9	43.8	9.9p	
	30대	31.7	35.8	35.1	40.4	41.9	53.7	11.8p	
	40대	29.2	32.6	34.4	38.8	41.4	50.1	8.7p	
	50대	22.0	29.0	28.6	32.9	35.5	44.0	8.5p	
	60세 이상	10.3	16.2	17.0	17.8	20.6	29.4	8.8p	
학력	중졸 이하	8.8	15.4	15.5	18.9	18.4	24.9	6.5p	
	고졸	20.8	24.6	24.5	27.4	29.1	37.6	8.5p	
	전문대졸	30.4	33.8	36.3	40.3	41.4	51.4	10.0p	
	대졸 이상	43.3	46.0	45.6	51.5	54.2	65.0	10.8p	
정규직 여부	정규직	30.4	34.7	34.6	39.5	41.4	51.5	10.1p	
	비정규직	19.8	23.5	24.4	27.8	28.8	37.3	8.5p	
사업체 규모	1~4인	7.3	9.5	10.7	12.6	12.9	17.7	4.8p	
	5~9인	13.6	16.0	16.5	18.9	20.2	26.7	6.5p	
	10~29인	24.9	29.2	28.9	33.4	35.9	44.5	8.6p	
	30~99인	37.3	39.8	41.0	47.8	49.2	57.6	8.4p	
	100~299인	40.8	46.5	48.8	53.8	54.5	63.9	9.4p	
	300인 이상	54.0	58.3	58.3	65.8	70.5	95.7	25.2p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가입	31.6	34.7	35.1	40.0	41.5	52.6	11.1p	
	비가입	20.5	25.1	14.1	16.1	16.5	21.8	5.3p	
	가입 제외	-	-	77.7	82.8	87.8	96.7	8.9p	

주: 1) 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자의 비율을 의미함.

2) 각 비율은 해당 집단에서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3) 고용보험 가입 제외: 2010년 3월부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의 경우 응답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의 지난 1년간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43.8%로 전년 동월 대비 9.9%p 증가

- 성별로는 남성 근로자가 42.3%로 전년 동월 대비 9.9%p 증가하였고, 여성은 45.2%로 10.0%p 증가
-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학력별 교육·훈련 경험 비율을 보면, 대졸 이상이 60.6%로 가장 높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치 또한 11.3%p로 가장 큼.
- 청년층 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48.9%로 전년 동월 대비 11.2%p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34.0%로 7.5%p 증가
 - 청년층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 격차는 14.9%로, 전년 동월 대비 3.7%p 증가하여 그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 사업체에서 교육·훈련 경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 근로자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8.2%p 증가하여 큰 증가치를 보임.

표 2.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

(단위: %, %p, 전년 동월 대비)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2013. 8	
								증감
임금근로자 전체		25.6	28.2	28.9	33.6	33.9	43.8	9.9p
성별	남자	24.7	26.8	28.0	33.0	32.4	42.3	9.9p
	여자	26.5	29.3	29.7	34.1	35.2	45.2	10.0p
학력	고졸 이하	15.4	18.1	18.5	21.4	20.4	28.7	8.3p
	전문대졸	27.7	32.0	34.0	36.9	38.5	47.8	9.3p
	대졸 이상	40.1	39.8	39.9	48.0	49.3	60.6	11.3p
정규직 여부	정규직	27.8	30.3	30.8	36.6	37.7	48.9	11.2p
	비정규직	21.4	24.1	25.2	27.7	26.5	34.0	7.5p

<표 계속>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2013. 8	증감
사업체 규모	1~4인	8.5	9.0	11.9	12.7	13.4	18.5	5.1p
	5~9인	16.3	18.1	19.9	21.4	23.1	30.0	6.9p
	10~29인	24.3	29.3	28.9	34.5	36.0	43.4	7.4p
	30~99인	32.0	34.2	35.5	42.0	43.1	49.8	6.7p
	100~299인	36.6	45.0	43.8	50.6	42.2	59.8	17.6p
	300인 이상	51.7	48.7	47.7	57.4	63.8	92.0	28.2p

주: 1) 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자의 비율을 의미함.
 2) 각 비율은 해당 집단에서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고령층(55~79세) 임금근로자의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35.5%로 전년 동월 대비 8.4%p 증가

- 성별로는 남성 근로자가 40.5%로 전년 동월 대비 7.9%p 증가하였고, 여성 근로자는 29.0%로 9.2%p 증가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57.1%로 교육·훈련 경험 비율이 고졸 이하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고령층 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40.5%로 전년 동월 대비 8.3%p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31.6%로 8.4%p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 근로자가 92.3%로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큰 증가치(28.7%p)를 보임.

표 3. 고령층(55~79세)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

(단위: %, %p, 전년 동월 대비)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2013. 8	
								증감
임금근로자 전체		14.0	20.8	21.4	23.9	27.1	35.5	8.4p
성별	남자	17.4	23.8	24.4	27.2	32.6	40.5	7.9p
	여자	8.9	16.6	17.3	19.4	19.8	29.0	9.2p
학력	중졸 이하	8.3	15.7	16.2	18.1	19.1	26.7	7.6p
	고졸	17.1	23.9	25.0	26.4	30.5	38.6	8.1p
	전문대졸 이상	31.9	37.3	37.2	41.2	49.1	57.1	8.0p
정규직 여부	정규직	17.6	24.6	25.0	28.7	32.2	40.5	8.3p
	비정규직	11.3	18.4	18.9	20.4	23.2	31.6	8.4p
사업체 규모	1~4인	5.2	9.3	9.9	10.3	11.1	15.9	4.8p
	5~9인	7.3	12.3	13.7	13.4	16.7	21.5	4.8p
	10~29인	15.4	22.0	25.2	26.9	27.5	39.2	11.7p
	30~99인	23.1	28.7	29.3	39.7	45.3	55.1	9.8p
	100~299인	32.7	39.8	40.4	47.6	56.1	56.2	0.1p
	300인 이상	30.1	46.3	44.3	51.4	63.6	92.3	28.7p

주: 1) 교육·훈련 경험 비율은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자의 비율을 의미함.

2) 각 비율은 해당 집단에서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2013년 8월 현재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의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34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시간 감소

- 성별로는 남성 근로자가 33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시간 감소하였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 35시간으로 2시간 감소
- 연령별로는 15-29세 근로자가 38시간으로 전년 동월과 동일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감소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4시간 감소하여 감소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고졸 근로자의 경우 전년 동월과 동일

-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36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시간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28시간으로 2시간 감소
 -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시간 편차는 8시간으로 나타남.
- 사업체 규모별로는 1~4인 이상 사업체 종사 근로자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업체의 경우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중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 근로자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교육·훈련 시간이 6시간 감소하여 감소치가 가장 크게 나타남.
- 고용보험 가입 여부별로 살펴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28시간, 비가입자는 31시간으로 나타남.

표 4. 임금근로자의 인적속성별 1년간 총 교육훈련 시간

(단위: 시간)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2013. 8	
								증감
임금근로자 전체		38	37	37	35	36	34	-2
성별	남자	37	38	37	36	36	33	-3
	여자	39	36	36	35	37	35	-2
연령	15~29세	36	34	34	35	38	38	0
	30대	39	40	41	38	37	34	-3
	40대	38	38	38	36	37	35	-2
	50대	37	37	35	33	36	33	-3
	60세 이상	25	18	20	18	18	16	-2
학력	중졸 이하	25	19	18	17	18	17	-1
	고졸	30	30	32	29	29	29	0
	전문대졸	33	35	33	33	34	32	-2
	대졸 이상	46	46	45	44	45	41	-4

<표 계속>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2013. 8	증감
정규직 여부	정규직	39	40	40	38	39	36	-3
	비정규직	34	29	29	27	30	28	-2
사업체 규모	1~4인	36	31	40	28	30	32	2
	5~9인	30	30	31	29	29	27	-2
	10~29인	36	33	33	31	32	31	-1
	30~99인	40	40	38	36	40	38	-2
	100~299인	35	34	33	33	35	32	-3
	300인 이상	41	43	42	44	42	36	-6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	33	31	31	29	30	28	-2
	비가입	47	48	33	31	31	31	0
	가입 제외	-	-	58	61	65	62	-3

주: 1)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자의 평균 시간임.

2) 고용보험 가입 제외: 2010년 3월부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의 경우 응답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의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38시간으로 전년 동월과 동일

- 청년층 남성 근로자의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38시간으로 전년 동월과 동일하고, 여성의 경우 41시간으로 3시간 증가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층 근로자가 36시간, 전문대졸이 42시간, 대졸 이상이 31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근로자만 증가(7시간)
- 청년층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40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시간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39시간으로 전년 동월과 동일
- 사업체 규모별로는 5~9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청년층 근로자의 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52시간으로 가장 길고, 전년 동월 대비 14시간 증가하여 증가치 또한 가장 큼.

표 5.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의 1년간 총 교육훈련 시간

(단위: 시간)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2013. 8		
									증감
임금근로자 전체		36	34	34	35	38	38	0	
성별	남자	34	36	34	36	38	38	0	
	여자	38	32	34	33	39	41	3	
학력	고졸 이하	27	26	30	30	35	36	-3	
	전문대졸	32	34	30	30	36	42	7	
	대졸 이상	44	39	40	41	42	31	-5	
정규직 여부	정규직	38	36	37	36	39	40	-2	
	비정규직	31	28	27	30	37	39	0	
사업체 규모	1~4인	35	32	27	20	38	36	-1	
	5~9인	29	29	39	37	29	52	14	
	10~29인	31	32	32	31	31	33	4	
	30~99인	38	38	30	29	51	33	2	
	100~299인	35	30	30	32	40	44	-7	
	300인 이상	43	37	36	51	40	32	-8	

주: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자의 평균 시간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고령층(55~79세) 임금근로자의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25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시간 감소

- 남성 근로자의 경우 26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시간 감소하였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 23시간으로 3시간 감소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근로자가 14시간, 고졸이 26시간, 전문대졸 이상이 41시간으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3시간씩 감소
- 고령층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교육·훈련 시간은 33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시간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7시간으로 4시간 감소

표 6. 고령층(55~79세) 임금근로자의 1년간 총 교육훈련 시간

(단위: 시간)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2013, 8	증감
임금근로자 전체		30	26	29	29	29	25	-4
성별	남자	29	26	30	30	30	26	-4
	여자	33	27	26	27	26	23	-3
학력	중졸이하	24	15	18	16	17	14	-3
	고졸	24	30	29	34	29	26	-3
	전문대졸 이상	41	42	49	45	44	41	-3
정규직 여부	정규직	32	32	38	37	36	33	-3
	비정규직	27	21	20	20	21	17	-4
사업체 규모	1~4인	18	24	23	23	25	17	-8
	5~9인	29	28	19	16	18	18	0
	10~29인	34	21	25	27	23	23	0
	30~99인	30	30	36	36	33	28	-5
	100~299인	30	24	32	27	29	30	1
	300인 이상	33	30	35	38	44	33	-11

주: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자의 평균 시간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고용보험 동향

□ 2013년 10월 기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약 171만 개소로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

○ 피보험자는 약 1,15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함.

표 7.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단위: 건, %)

	2012.10	2013.9	2013.10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사업장	1,581,608	1,755,820	1,711,679	130,071	8.2	-44,141	-2.5
피보험자(순수)	11,113,233	11,507,064	11,561,144	447,911	4.0	54,080	0.5
남 자	6,747,728	6,935,073	6,954,955	207,227	3.1	19,882	0.3
여 자	4,365,505	4,571,991	4,606,189	240,684	5.5	34,198	0.7
취득자	461,305	442,087	510,411	49,106	10.6	68,324	15.5
상실자	402,841	393,386	439,464	36,623	9.1	46,078	11.7

주: 피보험자 통계는 상시근로자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10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 직업능력개발사업 건수는 약 11만 7천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0% 증가

○ 세부 사업별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71.4%,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 65.0%,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가 42.6%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유급휴가훈련은 17.3%,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는 8.0% 감소함.

표 8. 직업능력개발사업 건수 현황

(단위: 건, %)

		건 수					2013.10월 누계
		2012.10	2013.9	2013.10		2013.10월 누계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전체		77,171	90,614	116,517	51.0	28.6	990,857
직업능력개발훈련		16,571	23,431	28,407	71.4	21.2	232,430
유급휴가훈련		381	228	315	-17.3	38.2	3,609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12,112	16,952	19,989	65.0	17.9	179,474
내일배움 카드제	재직자	1,660	1,276	1,527	-8.0	19.7	15,783
	자영업자	0	14	29	-	107.1	156
	실업자	46,447	48,713	66,250	42.6	36.0	559,405

주: 1)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의 지원 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일반회계 등을 포함하는 타 기관의 통계 수치와 다를 수 있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10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 **직업능력개발사업 금액은 약 564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6% 증가**

○ 세부 사업별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16.8%)과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137.4%),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2.8%),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34.4%)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유급휴가훈련의 경우는 감소(-6.9%)함.

표 9. 직업능력개발사업 금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금 액						
	2012.10	2013.9	2013.10			2013.10월 누계	
			전년대비	전월대비			
전체	43,927	50,547	56,486	28.6	11.8	990,857	
직업능력개발훈련	23,632	25,559	27,591	16.8	7.9	232,430	
유급휴가훈련	746	584	695	-6.9	19.0	3,609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2,261	4,704	5,367	137.4	14.1	179,474	
내일배움 카드제	재직자	1,312	1,347	1,349	2.8	0.1	15,783
	자영업자		3	7	-	107.9	156
	실업자	15,977	18,349	21,478	34.4	17.1	559,405

주: 1)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의 지원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일반회계 등을 포함하는 타 기관의 통계 수치와 다를 수 있음.

3) 2011년 9월 이후 수감지원금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로 명칭이 변경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10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KROU.ET

(작성: 박보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